

# 수능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응시자 줄었다

### 과목별 유희리 작용... 만점자 표준점수 차이 벌어져

###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기하 응시 증가

이번 달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치러진 학력평가에서 선택 과목별 유희리가 나타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 7월 치러진 인천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확률과 통계' 과목의 응시자 비율은 지난 3월 학력평가보다 4.3%포인트 낮아졌다.

자연 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의 응시자 비율은 3.0%포인트, 기하는 1.3%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선택과목 응시자 비율이 0.4%포인트 낮아졌지만 '언어와 매체'는 0.4%포인트 상승했다.

선택과목에 따라 만점자 표준점수를 보면 수학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2~7점,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3점 이상 높았다.

입시업계는 이번처럼 짧은 기간 사이 선택과목 응시 비율이 바뀐 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고교 생활 2년 동안 특정 과목을 공부한 데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목을 바꾸기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과 기하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 온 학생은 추가로 공부해야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선택과목 유희리 현상은 재학생만 응시하는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에서도 나타났다. 3월 학력평가에서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만점자 표준점수가 각각 150점, 157점으로 편차가 7점까지 벌어졌다. 7월 학력평가에서는 표준점수 차이가 2점으로 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목 간 유희리는 여전히 상황이다.

과목 간 유희리에 따른 선택과목 변화는 국어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 응시자 26.4%가 선택했던 '언어와 매체'를 7월 학력평가에서는 0.4%포인트 늘어난 26.8%가 선택했다. 재수생까지 응시하는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27.8%가 선택했다.

'언어와 매체'는 또 다른 국어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지만,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 학력평가에서 언어와 매체 만점자는 화법과 작문 만점자보다 표준점수가 4점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과목이 표준점수를 얻기 유리한 이유는 올해 도입된 선택과목 점수 조정의 영향 때문이다. 올해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을 신설하면서 평가원은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등을 반영해 표준점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가 표기된다. 평가원이 공개한 공식에 따르면 해당 과목 응시자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조정된 표준점수는 높게 나온다. 상위권 학생이 많이 보는 미적분과 기하, 언어와 매체가 조정 점수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이들 과목을 선택하는 응시자 수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오종은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국어 선택과목에 선 언어와 매체, 수학에선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할 수험생이 7월 학력평가 때보다 3~5%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동신대, 청소년과 '4차산업 메이커캠프'

### 광주·전남 고교생 20여명 댄싱봇 만들기·해킹체험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은 나주시 빛가람동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에서 최근 5일 동안 '2021년 4차산업 메이커캠프'를 진행했다. **〈사진〉** 광주와 전남지역 고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 해킹체험 ▲반짝반짝 LED 드림캐쳐 ▲내손으로 만드는 3D프린터 DIY(자가 제작) ▲아두이노-댄싱봇 만들기 ▲태양으로 움직이는 무인이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또한 PC와 스마트폰 해킹체험 프로그램의

일함으로써 해킹 경진대회를 열어 4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은 다양한 메이커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메이커문화를 활성화하고,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이 일상 속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휘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장은 "4차산업혁명기반 에너지신산업과 메이커 문화 확산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목포대, 지역 초중고생 예술·창의융합 인재 양성한다

### 문광부 '주제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목포대학교가 호남지역 초·중·고교생의 예술적 능력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에 나선다.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2021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예술 접근 기회를 누리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교사)와 예술가 그리고 대학교수 등 전문 인력이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학교-예술가 간 협력 구조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에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군산대·호남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남·북 및 광주권을 아우르는 전라권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총 6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광역형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주제 중심의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사업 운영은 예술가 1인 혹은 예술가 2-3인이 각각 학교 교사와 협력해 지역문화 주제 중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융합형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 이를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목포대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각종 프로그

그램, 장비·시설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음악학과·미술학과·패션의류학과·컴퓨터공학과 등 참여학과는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교육, 기술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과 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은 교사-예술가-학생의 상호 연결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AI·SW인재 양성' 매성중 에너지동아리 지원 성료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2021 매성중학교 AI·SW 에너지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최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매성중학교에서 진행된 에너지동아리 지원은 미래 신산업분야에 반드시 요구되는 AI·SW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선대 제공>

## 광주대, 지역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적극 지원

### GTEP사업단, 경진대회 열고 마케팅 활동 수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지역특화청년무역 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전자 상거래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대 GTEP사업단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전자상거래 특별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 6개 팀이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eBay)와 쇼피(Shopee) 등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들을 입점시키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학교 호심관에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통해 수행한 ▲지역 중소기업 발굴 ▲온라인 시장분석 ▲온라인 마케팅 ▲상품 리스팅 ▲판매전략 수립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개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싱가포르 쇼피(Shopee) 플랫폼에 ㈜디자인 메이트의 '탈모삼푸'를 등록한 '지킴2지킴' 유창훈(물류무역학과·3년) 외 5명이 대상을 차지했다. '지킴2지킴'은 분석적인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실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오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경진대회 수상을 목표로 쇼핑몰 온라인과 SNS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15년 연속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에 선정된 광주대는, 매년 3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외국어 학습과 무역실무 교육, 전자상거래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지역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